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의 미래 누구나 무업자가 될 수 있다



무업사회

케이·로스케 공저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 무직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경제개발기구(OECD)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기관에 등록되지도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은 취업 포기자) 비중이 청년층(15~29살) 가운데 15.6%에 이른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한국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와 멕시코뿐이라고 한다.

‘무업사회’라는 말이 있다. 무업(無業)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뜻의 무직과 비슷한 말로, 무업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기 힘든 사회를 무업사회라고 한다. 일본 사회도 한국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잠재적 청년 무업자가 4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미 ‘무업사회’에 진입했다.

일본 가나자와 공업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한 구도 게이와 리즈 메이칸대학교 특별초빙 준교수 니시다 로스케가 펴낸 ‘무업

사회’는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의 미래를 진단한다. 책은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만 명의 무업자에 대한 정성조사와 2300건의 정량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쓰여졌다. 저자들은 이미 도래한 ‘무업사회’에서 유령의 존재로 살아가는 청년 무업자의 실태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일본은 일찍부터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청년 무업자’ 문제를 겪었다. 일본의 사례는 유교 등 문화적 배경에 있어 공통점을 지닌 인접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많은 면에서 동일한 청년 문제에 직면한 국가다.

저자들은 청년 지원 기관 NPO(Non Profit Organization)에서 활동을 하며 만난 청년 무업자들의 실상을 접하면서 기존의 오해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청년백수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게으르고’, ‘일을 가려서 고르며’, ‘자유롭게 반동거리는’ 사람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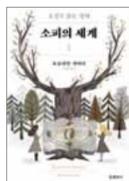
이들은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무업자들이 서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구조에 대한 무지가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청년 무업자’ 문제는 젊은 세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한글서원·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서양 철학 거장들의 사상 소설로 다시 읽다

소피의 세계

요슈타인 가아더 지음



소설과 철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전자가 인간의 삶을 형상화한다면 후자는 인간의 사유를 체계화한다. 결국 하나로 엮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세계가 하나로 연계된다면 어떨까? 일테면 이런 것이다. 소설이라는 허구를 매개로 철학을 들여다보는 방식 말이다.

때마침 그런 소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철학하면 일단 고개부터 흔들는 독자들에게는 호기심이 일 법도 하다. 노르웨이 출신으로 ‘오렌지 소녀’, ‘마법의 도서관’ 등을 출간한 바 있는 요슈타인 가아더가 ‘소피의 세계’를 출간했다. ‘소설로 읽는 철학’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소설은 철학의 장벽을 낮춰 우리의 삶에 가까이 끌어들이는 철학 대중화의 작품이다.

사실 이 작품은 20년 전인 1994년에 출간돼 프랑스, 독일, 미국 등 6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4000만 부 이상 넘게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는 20주년을 기념해 개정판으로 나온 ‘소피의 세계’는 새로운 세대에 익숙한 문투로 바뀌었으며 노르웨이 인명과 지명도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대로 정정했다.

“이 책은 철학 개론을 한 번도 수강하

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입문서가 될 것이며, 철학 개론을 수강했거나 수강했다더라도 대부분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아주 흥미롭게 기억을 되살려 줄 것이다.”(뉴스위크)

뉴스위크와 타임,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유수의 매체가 극찬한 대로 소설은 철학 강의를 전혀 현학적이지 않게 다룬다. 작가는 평이한 문체로 심오하면서도 난해한 서양 철학을 맛깔스럽게 요리한다.

소설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현대 실존주의까지 3000년에 이르는 서양 철학 거장들의 사상에 초점을 맞춘다. 소설적 장치와 맞물린 철학자들의 사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저자는 철학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독자로 하여금 철학적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다.

철학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스토리의 전개가 역동적이지는 않다. 서사는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열네 살 소녀 소피가 의문의 편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발신인은 스스로를 철학자라 소개하고 소피에게 철학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다. 그날부터 소피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는데 평소와 달리 사물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철학 선생님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고대 철학자부터 흄, 프로이트 등 현대 철학자들에 이르는 이들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 알베르트 크나그 소령과 힐데라브의 아멜리가 튀어나오면서 소설은 미스테리에 휩싸인다. 이 지점에서 소설적인 재미와 추리적인 요소가 첨가된다. 앞부분에서 다루지던 철학자들의 이야기, 즉 ‘소피의 세계’는 사실은 노르웨이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활동중인 알베르트 크나그가 딸인 힐데라브의 생일 선물로



쓴 소설 속의 허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설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주인공 소피와 선생 알베르트 크노스는 자신들을 창작한 크나그 소령에게 반발해 ‘소피의 세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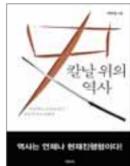
이처럼 이야기는 철학적 흐름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차용해 형상화된다. 독자들로서는 좀더 쉽게 철학적 사유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책은 철학

부재의 시대에 왜 우리에게 철학이 필요한가를 보여준다.

저자는 “인간은 수천 년에 걸쳐 우주의 본질에 대한 질문, 존재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위치에 대한 질문 등 많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고찰해왔다”며 “소피의 세계”는 철학 정신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그린 책”이라고 말한다.

<현암사·2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헬조선’ ‘흙수저’ 시대에 돌아 본 조선의 500년



칼날 위의 역사

이덕일 지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실수를 거울삼아 ‘반복’을 해서 안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구한말과 21세기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정치,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방향성과 주체는 다를 뿐 유사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복사판 내지는 축소판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역사학자 이덕일이 펴낸 ‘칼날 위의 역사’는 사회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해 역사 속에서 건져 올린 생생한 사례를 근거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헬조선’과 ‘흙수저’

의 시대로 대변되는 오늘의 한국은 조선의 500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다.

노비와 비정규직, 광해군과 불통, 군적 수포제와 담배값 인상, 류성룡 총리 잔혹사 등은 ‘대자취’가 느껴질 정도다. 역사는 ‘살아 있는 오늘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저자는 이야기 첫머리에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을 예로 든다. 나라를 삼키려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드는데 고종은 왕권 강화에만 매달렸다. 개혁과는 제 거되고 수구파만 득실대는 상황에서 사회 갈등은 극단을 치달았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지시형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가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포괄해 사회를 갈라끼 찢는 것을 정치로 착각”하는 이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인문서원·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 악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카인

주제 사라미구 지음

인류 최초의 악인, 카인은 동생을 죽이고 도망친 후 어떻게 살았을까? 1998년 노벨문학상과 ‘눈먼 자들의 도시’의 세계적인 거장 포르투갈 출신 주제 사라미구가 장편소설 ‘카인’을 펴냈다.

소설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하나님에 의해 이마에 낙인이 찍힌 인물이다.

작가가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다음의 의문으로 요약된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카인이 뉘 땅으로 간 뒤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한 정말 하나님은 카인을 버리고 아벨만 좋아했을까? 소설은 카인이 떠돌면서 직접 경험하며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한다.

<해냄·1만4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인성교육의 목표는 삼음, 실천전략은 육행



인성이 실력이다

조벽 지음

“인성은 성격이 아니라 실력이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익히는 것이며,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되는 습관입니다.”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잘 알려진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제안을 담은 ‘인성이 실력이다’를 펴냈다.

저자는 “인성의 핵심 역량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이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교사와 부모들이 스스로 인성교육을 점검하고 디자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성 교육의 목표를 ‘삼음(三律)로, 실천 전략을 ‘육행(六行)’으로 제시한다.

<해냄·1만48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방 810평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신제품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